

주 일 낮 예배 |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요한복음4:24)

오전 9:00	오전 11:00	인도 / 김동오목사
예배의부름		인 도 자
■ 경 배 찬 송		다 함 께
80.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 준비하시니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기 도		신예지선생님 김한수장로
성 경 봉 독		인 도 자
누가복음 10:25-37		
찬 양	주의 이름 높이라	교사중창단
영원한 노래		호산나찬양대
설 교		김동오목사
"당신도 그냥 지나치렵니까?"		
기 도		다 함 께
봉 헌	[예비신자 작성]	다 함 께
515.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목 회 기 도		설 교 자
■ 결 단 의 찬 양		다 함 께
우릴 사용하소서		
■ 축 도		설 교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건한 마음의 표시로 일어섭니다. ■ 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3월 23일 / 사55:1-9, 시63:1-8, 고전10:1-13, 눅1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도 / I. 신지혜권찰 II. 박병기장로

주 일 오후 찬양예배

오후 2:00

인도 / 김동오목사

직분자 교육 3

- 공예배 기도 -
(교재 별도)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7:15

인도 / 김동오목사

경배와찬양

(인도) 코람데오찬양단

기 도

안명옥집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7:15-34

인 도 자

설 교

"행34, 견딜 수 없는 어떤 분노"

김동오목사

기 도

다 함 께

찬 송

538.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다 함 께

축 도

설 교 자

□ 다음 기도 / 허대순집사

새 벽 기 도 회

새벽 5:00

인도 / 김동오목사

· 월	17일	민수기 1:20-46	가문에 따른 인구 조사와 체계적인 조직화
· 화	18일	민수기 1:47-54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지파
· 수	19일	민수기 2:1-34	진 편성에 담긴 의미, 삶의 중심과 방향
· 목	20일	민수기 3:1-13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
· 금	21일	민수기 3:14-39	하나님이 정하시는 직무와 사명
· 토	22일	민수기 3:40-51	대속의 원리, 구속의 은혜
· 일	23일	민수기 4:1-20	거룩함을 지키도록 정하신 규례

* 새벽기도회 목상 말씀은 Q.T 교재 <생명의 삶>(두란노) 해당 날짜 본문과 같습니다.

설 교 요약

당신도 그냥 지나치렵니까?

오늘 말씀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25) 비록 질문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지만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에 어떻게 나오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26)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27)고 한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28)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학자는 '네 그렇게 살겠습니까' 하면 좋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29). 예수님과 이웃에 대해 논쟁해 보자는 의도겠지요?

예수님은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 친절하게도 예(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심층적인 의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강도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31.32). 제사장, 레위인은?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 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심리적 묘사가 나옵니다.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33b).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과 대비되는 행동이 나옵니다.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었다**'(34).

예수님의 이야기는 율법학자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29)에 대해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이야기의 끝을 오히려 질문으로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36) 네- 이 질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내가 도울 이웃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관심 갖어야 할 부분은 마땅히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입니다. 상대방(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처럼 여기는 것을 알고 당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돕기 위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당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나 등의 거창한 이웃사랑의 논리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저 '측은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의 동족(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성직자인데요. 몇 가지 가정을 할 수 있겠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나도 강도 당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직무 후 귀가길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다가 귀가 시간이 늦었지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종교적 이유로 피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여 다음 직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겠지요? 다 충분히 가능한 변명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무관심**'입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무관심으로 살 때 그것이 죄라고 예언자들을 선포합니다(아브라함 헛셀). 우리는 비정한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은 아닐까요?

- 사순절 : ~ 4월 19일(토)
- 직분자교육 3 : 3월 16일(주일) 오후 2시, 대예배실
 - 참가대상: 임직후보자, 시무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 관심 있는 분
 - 주제: 공예배 기도(기도 인도)
- 2025년 해피데이전도축제
 - 예비신자 작정(2차): 3월 16일(주일)
 - 예비신자 만나기: 3월 16일(주일) ~
 - 구역별 기도: 3월 17일(월) - 22일(토)
 - 해피바이러스 3차모임: 3월 21일(금) 오후 8시
 - 청소년 해피데이 전도축제 초청일: 4월 6일(주일)
 - 해피데이전도축제 초청일: 4월 13일(주일)
- 지역전도 : 매주 토요일 오전 10:50, 소예배실(2층), 문의: 선상이집사
- 봄 심방: 3월 22일(토) 오후 2:30 31구역
- 제3여전도회 월례회 모임 : 3월 16일(주일) 2부예배 후, 대예배실
- 태장교회 공식성경은 [새번역성경]입니다.
- 헌금 계좌번호
 - 입일조,감사,건축 / 농협 213-01-166145, 태장성결교회
 - 선교헌금 / 새마을금고 4315-09-005272-5, 태장성결교회(선교부)
 - 나눔헌금 / 새마을금고 9002-1353-6796-9, 태장성결교회(나눔위)

목회계획

	3.16-22	3.23-29	3.30-4.5	4.6-11
16. 직분자 교육 3 예결교회 임직식	23. 8여전 헌신예배	31-5. 릴레이금식기도	6. 1남전 헌신예배	
18. D.P.A.(하늘평안) 교역자회의(횡성)	24-29. 기관별기도회	4.4. 코칭넷(태장)	7-12. 릴레이성전기도	

봉사위원

구분	3.16	3.23	3.30	4.6
방송	1부	신예슬	조경한	신예지
	2부	임윤구	조승현	임윤구
	오후	김현영	박태근	조승현
차량 운행	1호	강대봉	강병린	김문배
	2호	신재희	김명운	이철성
주방	34,43,46구역	35,45구역	21,23,25구역	22,31,36구역
오후 돌봄	-	최명숙	유혜순	김재욱
청소(화장실)	6여전	청년	7여전	8여전
봉헌	1부: 금은정		2부: 함도식	김주희

우리 교회는!

1.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성숙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배우기를 힘씁니다.
2.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꿈꾸며, 이를 위해 교회 프로그램 전반에서 가정을 배려합니다.
3.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쉬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00
2부	오전 11:00	해피바이러스모임	금 오후 8: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2:00	포에버예배	목 오전 1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7:15	구역장교육	수 오후 8:20
주일 유아예배	오전 11:00	전도모임	토 오전 10:50
주일 어린이예배	오전 10:50	구역모임	구역별 별도시간
주일 청소년예배	오전 11:00	주말교회청소	기관별 별도시간
주일 청년예배	오후 1:00		

태장성결교회 가는 길



시내버스 /
3, 4, 6, 7, 41, 42번
정암아파트 앞 하차

교회 버스 /
주일 낮, 수요, 새벽예배
차량 운행시간표 참조

섬기는 분들

담임 목사: 김동오

명예 목사: 채수환

부담임 목사: 조경한

청소년간사: 강호길

선교사: 황느헤미야 임에스터 (T국)

박에덴 베들레헴 (L국)

최용락 이민숙 (K국)

박종민 이인덕 (T국)

지영환 김희수 (V국)

최경민 김은진 (G국)

협력교회: 가평더사랑 귀운 서원주

영동 주님의 주사랑

주비전스토리 한우리

시무장로: 김인택 신재희 김한수

원로장로: 박병기

명예장로: 황호윤 김성제

찬양지휘: 고재석

반주: 원신희 장영희 변찬미

신지혜 박예강 이하민

김건희

협력사역: 강원코칭넷 강원캐넷 DPA

서울신학대학교 아이행복마을

원주북원노인종합복지관

원주소망주기복지센터

2025년 3월 16일
(통권 제 54권 11호)
교회설립 1973.5.20.
사순절 두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

예비신자를 만나러 갑니다.

3월 15일 현재 51명의 성도님들이 101명(중복제외 96명)의 예비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오늘도 예비신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예비신자 대상이 발견되는데도 계속 작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터는 예비신자를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비신자 초청일이 4월 13일이니 아직 멀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내 상황이나 예비신자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비신자를 3,4회 정도 만나십시오. 1회차 만남이 중요합니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었다. 차 한 잔 마시자(밥 한 번 먹자)'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왜 만나자고 하는지 호기심이 생길 것입니다. 1회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당신과 한 번 같이 가 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듣는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들려 주고 싶었습니다" 얘기하세요. 단, "딱 한 번만 가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것인데 한 번만 오고 말면 안 되겠지요.

1회차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회차 만남에서는 초청일을 알려 드리십시오. 교회가 제공하는 초대장을 드려도 좋습니다. "초청일은 당신과 같이 초대 받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날이라 스스럼없이 와도 좋을 것입니다. 불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세요. 혹시 4월 13일(주일)에 약속이 있어서 못나온다고 하면 바로 "4월 20일(주일)도 초청일"이라고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이분이 초청일에 오실 수 있을지 판단하세요. 해피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참석 여부 확인차 연락하시면 예비신자 참석, 불참, 유보 하나로 대답하세요.

3회차 만남에서는 초청일에 함께 교회 가기로 구체적으로 약속하세요. "초청일 당일 몇 시, 어디에서 만나 함께 갑시다", "당일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차하기 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마지막 지점에서 초청일에 못간다 하더라도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만남을 계기로 다음에 다시 초청할 수 있는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예비신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6318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4 (태장동)

☎ 033-742-6762, 070-5168-1770 (담묵)

태장성결교회
http://taejang.org